

日帝時代村落統制의 社會史的 分析

高 承 濟*

第1節 序 言

李朝時代의 地方行政體系가 東洋의 郡縣制度의 類型에 따라서 編成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있는 事實이다. 또한 郡縣制의 地方行政體系는 中央集權의 官人體制의 行政力이 縣單位에서 끝나고 縣以下의 鄉村을 統制·支配함에 있어서는 五家統制度나 鄉約制度를 줄거리로 하는 間接的統治方式을 適用하여 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事實이다.

朝鮮總督府는 日本軍閥의 指示에 따라서 憲兵隊配置主導型의 地方統治方式을 強行하였다. 따라서 民政本位의 鄉村行政體制는 李朝時代의 그것과 다름없이 粗忽한 것이었다. 朝鮮總督府는 1911년에 優良面의 實態를 調査한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全國에서 109個所의 優良面을 選定發表하였다. 優良面의 標準의 事例로서 水原郡 南部面의 實態를 보기로 하였다. (가) 面事務所로 南部面 南水洞에 있는 面長住宅안의 建物 한채를 使用하고 있으며 面長住宅의 大門에 面事務所의 看板을 달고 있었다. (나) 面長 朴世陽은 舊韓國의 中樞院議官(正三品)의 經歷을 지니었던 사람이었다. (다) 面事務所의 職員은 公錢領收員과 書記 1명이 있었을 뿐이다¹⁾. 109面에 걸쳐서 面事務所는 面長住宅의 房 하나를 利用하고 있는 것이 絶對多數의 比率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郡以下의 村落社會를 다스리는 行政體制는 名분에 끝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村落社會를 물샷틈없이 統制·支配하는 命題야말로 植民地支配體制를 構築하는 基本課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狀況 속에서 日露戰爭의 勃發과 더불어 設立을 서둘렀던 日本人大農場들이 農場안에 散在한 村落들을 私領처럼 統制·支配하는 風潮가抬頭되었다.

日本軍閥의 發想에 따라서 設立되었던 東洋拓殖株式會社가 搬入하여 드리는 移民들은 韓國의 傳統的인 村落社會에 分散하여 統制·支配者로 君臨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그리고 1907年 5월에 設立되었던 金融組合은 처음 부터 村落社會에 對한 統制·支配의 觸手로 役割하였다.

時間의 經過에 따라서 面單位의 鄉村行政體制가 整備強化되어 갔던 것은 否定할 道理가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日本人大農場, 東拓移民, 金融組合 등이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는 範圍가 擴大되고 強度가 増大되어 갔다는 事實은 日帝時代의 全過程을 걸쳐서 一貫하여 온

* 學術院會員, 서울大學校人文大學講師

1) 朝鮮總督府編, 朝鮮各道ニ於ルケ優良面調査, 1911年 12月, 1面.

것이였다. 이 論文은 日本人大農場, 東拓移民, 金融組合等이 韓國의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여 온 性格과 形態를 解明할것을 目的으로 삼는 것이다.

第2節 日本人農場에 依한 村落統制的 性格과 態樣

日露戰爭의 勃發과 더불어 三菱, 澁澤, 大倉等の 日本財閥들이 앞장 서서 韓國의 農土를 廉價로 占有하여 廣大한 農場을 設置하는 風潮가 高調되었다. 1910年末에 이르러 日本人 農業經營者數는 2,254名으로 增加하였다. 그들은 1,373萬 6,567圓을 投資하여 8萬 6,952町步의 土地를 占有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1萬圓 以上을 投資하여 農場을 設立한 日本人數는 172名에 이르렀으며 그들의 土地所有面積은 5萬 8,943餘町步에 이르렀다고 한다²⁾.

日本人들이 土地를 占有하여 農場을 設立한다는 事實은 村落를 所有하고 村落의 支配者로 君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日本人들의 土地占有面積의 增加趨勢를 말하는 양상한 統計數字만을 끌어한다 하여 植民地時代의 社會經濟史의 側面을 底邊으로부터 把握할수는 없는 것이다.

封建的인 社會經濟體制를 體制的으로 止揚할 수가 없었던 日本人들이 植民者로 韓國에 君臨하여 農場을 設立·運營함에 있어 村落社會의 支配者로서 어떻게 韓國人小作人들을 統制하였는가. 日本 植民者들은 그들이 占有한 廣大한 占有地안에 散在하였던 村落들을 하나의 私有領域으로 自認하고 封建的인 主從關係를 基準삼으면서 村落社會의 支配者로 行勢하였던 것이다.

1910年 12月 現在 100町步 以上の 土地를 占有하여 農場을 設立한 日本人 農場數는 63個所에 이르렀다. 東拓農場을 除外하더라도 62個所의 日本人 經營大農場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62個農場中에서 한 郡안에 農地를 占有한 農場數는 16個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6個農場은 적으면 2個郡에 걸쳐서 많으면 17個郡에 걸쳐서 土地를 占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人農場에 依한 村落의 支配圈은 한 村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數個村落, 많으면 數 10個의 村落에 걸치는 廣大한 것이었다는 事實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바이다.

1932년에 이르러 100町步 以上の 土地를 占有한 日本人大農場數는 147個所로 增加하였다. 1910年末의 63個所에서 147個所로 增加하였으니 2·4倍를 넘는 增加率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日本人大農場制度가 急増하는 趨勢를 보이게 된 背後에는 村落社會의 統制·支配者로서 大農場制度가 植民政策의 目的達成에 有効한 手段으로 役割하여 왔기 때문에 日本政府나 朝鮮總督府가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는 事實이 가로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제 農場制度에 依한 村落支配의 性格과 態樣을 말하여 주는 몇 가지 事例를 分析하여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澁澤榮一에 依하여 設立되었던 韓國興業株式會社農場의 事例를 檢討의 對象으로 삼아 보기로 하겠다. 1904年 7月 11日에 澁澤 榮一은 韓國에 對한 金融支配의 尖端을 달리고 있었던 第一銀行幹部들과 協議하여 韓日貿易의 促進策으로 韓國村落을 開發하기 爲한 韓國興業株式會社를 設立하였다³⁾.

韓國興業株式會社は 1910年 12月에 이르러 全南道の 木浦, 咸平, 海南, 羅州, 慶北道の

2) 尾西 要太郎編, 鮮南發展史, 1913年, 199面.

3) 澁澤 榮一傳記資料刊行會編, 澁澤榮一傳記資料, 第16卷, 1957年, 589面.

慶山, 永川, 慈仁, 河陽, 清道, 大邱, 新寧, 慶南道の 密陽, 釜山, 金海, 梁山, 黃海道の 黃州, 鳳山等 17個地方에 걸쳐서 農場을 設立・運營하였다. 그리고 韓國興業株式會社가 占有하였던 土地面積은 畓이 669町步, 田이 6,153町步, 山林이 49町步, 其他地가 8町步로 合計하여 6,879町步에 이르렀다.

이제 韓國興業株式會社가 黃海道 黃州郡 齊安面 禮洞里에서 5,740町步의 農土를 買入하여 처음으로 農場을 設置하였던 黃州農場의 事例를 살펴여보기로 하겠다.

朝鮮興業株式會社가 이 고장에서 農土를 買入할 무렵에 村落民들은 強勁한 反撥을 나타내어 마지 않았다. 기름진 沃土를 占有할려는 野慾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韓國興業株式會社는 野卑하게도 兼二浦에 駐屯하고 있었던 日本軍隊를 動員하여 農土의 讓渡를 한사코 拒否하여 왔던 村落民들을 銃劍로 威脅하여 賣渡를 強要하였다. 그리고 武力으로 強制賣渡를 強行하였던 後遺症을 두려워 한 나머지 韓國興業株式會社는 土地文卷의 授受로 끝마치었던 賣買價例를 不信하고 坊長이나 里長을 買收하여 虛構한 賣買證書를 作成하였다. 어쨌든 日本軍隊를 動員하고 坊長과 里長을 買收하는 方式으로 強行하였던 農地買入이 不法적이었기 때문에 村落民들의 憤怒는 좀처럼 사라질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村落民과 韓國興業株式會社 사이에 10餘年間に 걸친 訴訟紛爭이 거듭되었다는 事實이 그 真相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풀이하여 볼 수가 있다⁴⁾.

그러면 村落民의 潜在的인 抵抗意識이 持續되었던 環境 속에서 韓國興業株式會社는 어떠한 村落支配 方式을 適用하였던 것인가. 韓國興業株式會社는 韓國人小作人 中에서 60餘名の 協力分子를 精選하여 舍音의 地位를 배풀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抵抗意識에 불타고 있었던 村落民들을 統制・支配하기 爲하여 韓國興業株式會社는 舍音制度라는 間接的인 統制・支配方式을 適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舍音制度는 小作制度의 發生과 더불어 價行되어 왔던 韓國에 固有한 小作管理制度이다. 따라서 封建地主의 權限代行者로 그 性格을 規定하여 볼 수가 있다. 小作人들에 對하여 地主의 權限을 代行하여 왔던 만큼 舍音의 「一顰一笑」는 小作人들의 生死에 關係될 만큼한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⁵⁾.

韓國興業株式會社는 古來로 韓國의 農業經營制度를 崩壞의 局面으로 빠러트리었던 舍音制度를 서슴치 않고 適用하여 마지 않았다. 舍音制度의 原型은 地主와 小作人의 關係를 調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舍音은 (가) 小作料의 策定 및 收取, (나) 小作人의 監視, (다) 小作地의 改善 및 修理, (라) 租稅의 代納等の 機能을 發揮하는 處地에 있었기 때문에 小作人들에 對한 彈壓을 일삼는 存在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舍音은 小作料를 策定・收取하는 權限을 發揮함과 아울러 (가) 小作人의 選定, (나) 小作人의 解除, (다) 小作地의 變更等の 權限을 손 안에 넣고 地主와 自身の 利益을 極大化하기 爲하여 小作人의 彈壓을 일삼어 왔던 것이다⁶⁾.

韓國興業株式會社가 舍音制度를 適用한 것도 그것이 村落小作人들에 對한 가장 有効한 彈壓手段이 될 수가 있었다는 判斷에 따르는 것이었다고 풀이하여 볼 수가 있다. 韓國興業株式會社는 舍音制度의 効率을 높이기 爲하여 舍音中에서도 忠誠도가 높은 5~6名の 舍音을 選擇하여 日本으로 觀光視察을 보내는 策略도 배풀어 왔다⁷⁾.

4) 大橋 清三郎編, 朝鮮産業指針, 1915年, 285~286面.

5) 朝鮮總督府編, 朝鮮の小作慣習, 1929年, 241面.

6) 朝鮮農會編,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年, 94面.

둘째로 1899年 8월에 韓國에 渡來하여 高宗에게 3萬圓을 上納하고 無煙炭의 採掘權을 入手하였다고 하는 富田 儀作이 1905년에 鎭南浦의 近郊인 漢頭里에 設立한 三和農場의 事例를 살피어 보기로 하겠다. 三和農場은 日露戰爭때에 鎭南浦에 駐屯하고 있었던 日本軍隊에 野菜와 果實을 供給할 目的으로 設立된 것이었다⁷⁾.

富田 儀作은 1901년부터 黃海道 殷栗郡의 金山浦에서 殷栗鎭山을 經營하여 왔다. 金山浦村落에서 徵集한 6~700名の 鎭夫들을 使役하고 있었던 富田 儀作은 1907년에 408町步의 農地를 買入하여 三和農場의 分農場을 設立하였다.

富田 儀作은 金山浦農場을 運營함에 있어 村落小作民들을 宣撫하기 爲하여 1909年 6월에 4年制 私立學校를 設立하였다. 해마다 9名の 卒業生을 내었으니 講習所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⁸⁾.

韓國興業株式會社 農場과는 달리 舍音制度를 適用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富田 儀作은 어떤 方式으로 村落民을 統制하였는가. 먼저 富田 儀作은 殷栗郡의 士大夫家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李朝政府로부터 松禾郡 主事兼 鎭務官主事に 任命된 바 있었던 全珩實을 鎭山 및 農場運營의 協議者로 利用하여 왔다. 全珩實을 協議者로 利用하므로서 金山浦村落의 王者인 富田 儀作의 支配體制를 強化하기 위한 策略에서 비저진 決定이었던 것이다. 全珩實이라는 地方名望家를 앞세워 利用하면서 金山浦村落을 統制支配하는 方式이 얼마나 有効한 것이었느냐를 말하여 주는 한가지 事件을 引用하여 보기로 하겠다.

韓日合邦의 條約이 發表되자 다른 地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殷栗邑에서도 70餘名の 抗日義兵隊가 武裝을 갖추고 鎭山과 農場을 經營하면서 金山浦를 支配하여 왔던 富田 儀作을 襲擊하려는 計劃을 세우고 있었다. 富田 儀作은 全珩實을 殷栗邑에 密派하여 抗日義兵隊의 指導者들을 撫摩토록 하였다. 어쨌든 抗日義兵隊는 富田 儀作에 대한 襲擊計劃을 取消하고 말았다는 것이다¹⁰⁾.

「富田 儀作傳」은 富田 儀作이 金山浦村落의 恩人이라고 부르짖었던 全珩實의 呼訴가 奏効한 탓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殷栗郡의 名望家이며 松禾郡主事兼 鎭務官主事라는 官職을 가진 全珩實의 體面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妥當한 解釋이 될런지도 모른다.

다음에 富田 儀作은 1918년에 이르러 朝鮮總督府 法務局長에 請願하여 金山浦에 私立監獄을 設立하였다. 罪囚 300名을 收容할 수 있는 2,590坪의 獄舍를 建築하여 私設監獄을 設立한 富田 儀作의 意圖는 무엇이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罪囚勞動力을 鎭山과 農場에 利用하는 것도 하나의 目的이었을지도 모른다¹¹⁾. 그러나 보다 더 重要的 理由는 私設監獄을 村落統制의 強力手段으로 利用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農場과 더불어 鎭山을 運營하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나 300名の 罪囚를 收容할 수 있는 큰 規模의 私設監獄을 設立하였다는 事實이야말로 日本人農場들이 領域안에 散在한 村落들을 自治領처럼 統制・支配하였다는 事實을 말하여주는 不動의 證據거리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金山浦의 私設監獄에는 200名~250名の 罪囚들이 收容되었다. 그렇다면 富田儀作은 金山浦村落民을 언제라도 손쉽게 投獄할 수 있는 立場에 있었던 것으로

7) 大橋 清三郎編, 前掲書, 293面.

8) 富田 精一編, 富田 儀作傳, 936年, 116面.

9) 大橋 清三郎編, 前掲書, 153面.

10) 富田 精一編, 前掲書, 187~190面.

11) 富田 精一編, 前掲書, 319~320面.

볼 수가 있게 된다.

셋째로 全北의 穀倉地帶에 設立하였던 川崎農場의 事例를 살피어 보기로 하겠다. 川崎農場의 設立者인 川崎 藤太郎은 1904年 4월에 日本公使館의 萩原 守一 書記官으로부터 農場設立의 勸誘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같은 事實을 뒤집어 본다면 日露戰爭의 勃發과 더불어 日本人 大農場의 設立風潮가 忽然히 高調되었던 것은 日本政府의 指示를 받은 駐韓日本公使館의 策動에서 비롯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바이다.

이랬던 忠南 連山郡에서 1,100餘 斗落의 農地를 買入하였던 川崎 藤太郎은 다음해 4월에 全北의 沃溝, 臨波, 威悅, 萬頃등에 걸쳐서 417町步의 農土를 占有하고 川崎農場을 設立하였다. 그러나 川崎農場의 農地占有面積은 1914년에 이르러 546餘町步로 膨脹하였다. 참으로 驚異의인 發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川崎農場은 領域안의 村落들에 대하여 어떠한 統制·支配方式을 適用하였는가. 川崎農場은 本據地의 地名을 瑞穂(미즈호)村으로 改名할 程度로 日本神道の 理念을 村落民들에게 扶植하기에 餘念이 없었다. 地方名을 瑞穂村으로 改名하였을 뿐만 아니라 農場內의 6個村落을 위한 消防組合을 結成함에 있어서도 瑞穂消防組合이라는 名稱을 부치고 있었다. 群山警察署는 川崎農場에게 私設消防組合의 設立을 認可하였다¹²⁾. 이것은 些少한 일인듯하나 川崎農場이 領域內의 村落들을 自治領처럼 統制·支配하고 있는 事實을 間接적으로 是認하는 指標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日本神道の 狂信者이었던 川崎 藤太郎은 農場을 設立한 4年後인 1909년에 故鄉인 新瀉地方의 깨끗한 흙을 옮기여와서 瑞穂神社를 建立하였다. 그리고 봄 5月 17日과 가을 10月 17日에는 祭典을 차리고 參加한 韓國人小作人들에게 神酒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村落小作人들을 日本神道の 信者로 改宗토록 하므로써 그들에 대한 統制와 支配의 效率을 높이도록 애써 왔다.可笑스럽게도 恰이없는 事實이기는 하나 日本人大農場이 韓國人村落들을 統制·支配하는 하나의 “케탄”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指摘하여 두는바이다.

川崎農場은 韓國興業株式會社의 경우 처럼 封建遺制에 지나지 않았던 舍音制度를 適用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하여 川崎農場은 近代의인 良識에 따라서 村落小作人들에 대한 人間關係를 實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川崎農場이 施行하였던 村落小作민들에 대한 統制·支配方式은 어떠한 性格과 形態를 지니는 것이었는가.

韓日合邦과 더불어 川崎農場은 小作組合을 結成하여 村落小作人들을 組織化하고 統制·支配하는 方式을 適用하였다. 總則(1條~4條), 事業(5條·14項), 役員(6條~12條), 會議(13條), 會計(14條)로 構成된 「川崎農場小作組合規約」을 살피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村落小作人들에 대한 統制·支配方式의 類型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먼저 農場內의 村落을 構成하는 基本單位인 里마다 小作組合을 結成하고 里中의 指導者格인 小作人中에서 理事 1名과 督勵員 若干名을 任命하는 方式을 適用하였다. 이것은 地方行政의 原理를 小作組合이라는 組織을 걸쳐서 適用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末端地方行政의 原理로 村落小作人들을 組織함으로써 川崎農場의 村落統制·支配의 效率을 昂揚시켜 보자는 意圖가 뚜렷히 窺이고 있다. 더구나 村落社會를 小作組合이라는 名分 밑에서 里洞組織으로 꾸겨 놓았다는 事實은 農場主人 川崎蘇太郎가 村落領主의 地位에 있음을 間接적으로 象徵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12) 大橋 清三郎編, 前掲書, 39面.

다음에 小作組合의 事業을 規定한 第5條 1項에서 14項에 이르는 細密한 規約들은 村落小作人들의 農事勞動을 물샐틈 없이 農場의 監視 밑에서 이룩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強制規定의 性格을 지니는 것들이다. 農地의 改良, 種子, 肥料, 農具의 使用마저 農場의 監視 밑에서 이룩할 수 밖에 없도록 規定되고 있다¹³⁾

1939년의 全北 地方의 日本人大農場의 經營實態를 調査한 바가 있었던 日本人 農業經濟學者는 다음과 같은 印象記를 남기고 있다. (가) 村落小作人들은 形式的이나마나 收穫物의 分配에 있어 耕作의 危險을 地主와 共同으로 負擔하는 制度는 大農場經營의 長點으로 헤아릴 수가 있다. (나) 그러나 川崎農場의 小作組合 事例를 念頭에 두고 내린 結論인지는 모르나 小作人들의 農事勞動이 물샐틈없이 農場의 監視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事實은 그들이 小作農의 地位에서 轉落하여 賃金勞動者가 되고 말았음을 말하여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村落小作人들로 하여금 自主的인 農事勞動計劃을 樹立·實踐할 수가 없도록 함으로서 그들을 賃金勞動者의 地位에도 轉落시키고 말았다는 事實이야말로 日本人農場企業의 利潤源을 増大시키는 要因이 된다는 것이다¹⁴⁾.

끝으로 三菱財閥의 總本家인 岩崎家の 直營農場인 東山農場의 事例를 살피어 보기로 하겠다.

三菱財閥의 總帥인 岩崎 久彌는 1907年 1月부터 1909年末에 이르기까지 京畿道の 水原, 烏山, 仁川近郊, 全北道の 全州郡 助村面 半月里, 全南道の 榮山浦 但泉洞 等地에 4,236町步의 農土를 買入하여 東山農場을 設立하였다. 東山이란 岩崎 久彌의 雅號이다. 三菱財閥은 23個業體의 直營會社, 42個業體의 支配會社, 54個業體의 關係會社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三菱財閥의 總帥인 岩崎 久彌의 家族會社로서는 三菱製紙, 旭硝子, 東山農事會社가 있었을 뿐이다. 三菱製紙會社의 公稱資本額이 1,000萬圓, 旭硝子會社의 公稱資本額이 1,250萬圓인데 比하여 東山農事會社의 公稱資本額은 1,000萬圓이고 拂入資本額은 700萬圓이었다¹⁵⁾. 따라서 韓國에 設立된 東山農場의 經營主體인 東山農事會社는 그 資本規模에 있어 財閥會社의 格調를 가추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바이다.

三菱財閥의 總帥이고 男爵의 爵位를 지닌 貴族이었던 岩崎 久彌는 東山農場의 領內村落들을 어떻게 統制·支配하였는가. 이제 全州郡 助村面 半月里에 設立되었던 東山農場의 경우를 標準事例로 삼으면서 살피어 보기로 하겠다.

岩崎 久彌는 東山農場을 設立함에 앞서서 半月里라는 名稱을 假借없이 抹消하여 버리고 새로이 東山村이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韓國의 傳統的인 村落名을 東山村이라고 改稱하므로써 岩崎王國의 領域임을 誇示하려는 處事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日露戰爭이 勃發하였을 무렵에 岩崎 久彌는 3,000萬圓을 投下하여 湖南地方을 모조리 占有할 計劃을 품었던 바가 있었다고 한다. 日本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封建領主의 꿈을 韓國 땅에서 具顯하여 불려는 野慾의 表示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쨌든 岩崎 久彌는 半月里의 農土 2,000町步를 모조리 占有하고 村落民 1,700名을 모조리 小作人으로 支配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半月里는 岩崎 久彌의 私領地가 되고 말았다.

半月里의 東山農場을 視察한 바 있었던 日本人 文筆家 菊池 謙讓조차 다음과 같은 印象記를 남기고 있다. (가) 岩崎王國의 私領地인 東山村 안에는 壯大한 岩崎邸宅이 세워져 있을

13) 大橋 清三郎編, 前掲書, 22~24面.

14) 山田 龍雄, 「全羅北道に於ける農業經營の諸相」, 農業と經濟, 第8卷 8號(1941年 8月), 65面.

15) 高橋 龜吉, 日本財閥の解剖, 1930年, 107, 122~123面.

뿐만 아니라 岩崎家の 私設郵便局, 岩崎家の 私設學校, 岩崎家の 私設警察署마저 設立되고 있었다. (4) 岩崎家の 머슴같은 日本人이 面長이나 學校長에 就任하고 있었다. 따라서 岩崎家の 東山村은 總督府의 地方行政圈에서 버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道나 郡 單位의 地方行政을 指揮하는 處地에 있었다. (5) 韓國人 小作人들은 「王國의 臣妾」이 되어 굶주림을 모르고 다만 滿足하고 있었을 뿐이다¹⁶⁾.

川崎農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東山農場에 있어서도 小作人組合이 設立되어 村落小作人들의 生活와 思想을 統制하는 機能을 發揮하고 있었다. 小作人組合은 種子의 選定, 施肥, 除草, 收穫, 米穀의 搗精등의 農事勞動을 農場의 監視下에서 이룩하는 強力한 勞動規制機構로 役割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小作人組合은 農事勞動의 單位投下量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婦女子勞動력을 動員하는 生活規制機構로도 役割하였다¹⁷⁾. 따라서 東山農場에 있어서는 男性이나 女性이나 할 것 없이 村落小作人의 家族이 모조리 賃金勞動者의 處地로 轉落하고 말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東山農場에 있어서는 村落小作人들이 小作人의 地位조차 喪失하고 家族員이 모조리 賃金勞動者로 轉落하였다는 事實은 輕視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東山農場의 岩崎家에 대한 村落小作人들의 人間關係가 封建領主에 대한 封建領民의 人間關係를 彷彿케 하는 事例이기 때문에 輕視할 수 없는 것으로 斷定하게 되는 것이다.

第3節 東拓移民村落의 統制形態

日本軍閥의 主流派의 元祖로 알려진 온 山縣 有朋·桂 太郎등이 發想하였던 特權植民會社인 東洋拓殖株式會社は 1908年 12월에 設立되었다. 南滿洲鐵道株式會社와 손을 잡고 韓國과 滿洲에 植民帝國을 建設하려는 日本軍閥의 強硬한 運營方針에 따라서 東拓은 1910年에 160戶의 移民農家を 定着시키었다.

160戶의 日本人移民農家は 京畿道, 忠南道, 全北道, 全南道, 慶北道, 慶南道에 散在한 肥沃한 農業村落에 定着하였던 것이니 傳統的인 村落社會에 對한 衝擊의인 事件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道別로 東拓移民의 定着戶數를 살펴서 본다면 京畿道 25戶, 忠南道 7戶, 全北道 37戶, 全南道 15戶, 慶北道 10戶, 慶南道 66戶이었다¹⁸⁾.

東拓은 1926년에 있었던 第17次 移民을 끝으로 移民事業을 中斷하고 말았다. 그 무렵에 9,000戶를 헤아렸던 東拓移民 戶數는 1928年 3月 現在로 4,004戶로 減少되었다¹⁹⁾.

다시 1935年 6月末 現在로 東拓移民 戶數는 3,893戶로 減少되었다. 道別 分布狀況을 보면 京畿道 622戶, 忠北道 15戶, 忠南道 289戶, 全北道 570戶, 全南道 693戶, 慶北道 428戶, 慶南道 734戶, 江原道 1戶, 黃海道 530戶, 咸南道 6戶, 平北道 5戶이었다²⁰⁾.

東拓移民은 南韓圈에 集中되어 왔으나 黃海道를 비롯한 北韓圈에도 擴延되어가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었다. 韓國村落社會의 支配者로 登場하였던 東拓移民의 影響圈이 그만큼 擴大되어 갔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東拓은 日本軍閥의 植民地支配手段으로 設立되었던 植民特權會社이었던 만큼 東拓移民들

16) 菊池 謙讓, 朝鮮諸國記, 1925年, 141~142面.

17) 大橋 清三郎編, 前掲書, 4~5面.

18) 朝鮮總督府編, 朝鮮農務彙報, 第3輯(1912年 4月), 179~180面.

19) 小早川 九郎編, 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1944年, 488~489面.

20) 拓務大臣官房文書課編, 拓務要覽(1935年版), 459面.

로 하여금 村落社會의 實權의인 支配者로 발판을 굳힐 수가 있도록 格別한 配慮를 베풀었다. 東拓移民의 定着村落에는 警察駐在所뿐만 아니라 憲兵派出所를 設置하였다. 憲兵派出所의 設置와 더불어 郵便通信網도 自動적으로 設置되었다²¹⁾.

日本軍閥의 格別한 支援을 받으면서 韓國의 村落社會에 侵入하였던 東拓移民의 村落統制 및 支配의 性格과 態樣은 日帝植民政策의 村落統制를 特徵짓는 重大要因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東拓의 支配村落들이 어떠한 實態에 빠져 있었느냐를 말하여 주는 몇 가지 事例를 들추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에 所在하는 驛村里의 實態를 보기로 하겠다. 恩平面은 서울 附近에서도 東拓의 支配地域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恩平面의 農耕地面積은 1923年 現在로 2,614餘町步이었다. 田이 1,586餘町步, 畓이 894餘町步, 垵가 133餘町步이었다. 東拓의 占有地 面積은 田이 141餘町步, 畓이 333餘町步 이었다. 따라서 恩平面에 있어 東拓은 475餘町步의 肥沃한 農耕地를 占有하고 있었던 事實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바이다.

그러면 東拓은 占有地안에 散在하는 村落들을 어떻게 支配하였는가. 恩平面의 戶口數는 韓國人 戶口數가 1,374戶인데 反하여 日本人 戶口數는 28戶에 지나지 않았다. 흔히 東拓의 支配村落이라면 日本人의 移民村落으로 錯覺하는 境遇가 적지 않다. 그러나 恩平面의 事例는 極少한 日本人 移民農家가 多數의 韓國人 小作農家를 支配하는 社會의 關係에서 東拓의 特有한 村落支配體制를 쌓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922年 11月 18日에 恩平面의 驛村里를 探訪한 開闢社記者 朴達成이 남긴 記錄은 東拓支配村落의 實態를 말하여 주는 貴重한 記錄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驛村里의 韓國人 戶口數는 70餘戶인데 東拓의 日本人 移民戶數는 8戶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8戶의 日本人移民農家가 60餘戶의 韓國人戶數를 小作農家로 支配하기 爲하여 빚어졌던 驛村里의 社會構造는 어떠한 性格과 樣相을 지니는 것이었는가. 무엇보다도 記者들의 눈에 비추었던 驛村里의 社會相을 그냥 그대로 引用하여 보기로 하겠다. 「驛村里의 土地는 肥沃한데 本來 驛屯土가 多部分이었다가 8~9年前에 東拓으로 沒入하였다 합니다. 朝鮮農民의 生活狀態는 舉皆 東拓移民을 土主로 하여 그 餘力을 조금씩 얻어먹는데 大概是 移民에게 勞役者이고 小作人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移民은 東拓에, 朝鮮農民은 移民에게 2重 小作 即 2重 租稅를 納한다 합니다. 이것도 그들에게 信用이 있고 매우 手段이 좋은 者라야 艱辛히 몇마직이 얻는다 합니다. 150坪 한마직이에 1石 3斗의 「도지」를 무는데 豐年이라야 10分의 3을 小作人이 먹고 凶年이면 全部 東拓에 받치는데 今年도 全部 東拓에 받치고 朝鮮人農民은 徒勞無得이라 하며 어떻게 살지 寒心하외다 하면서 哀願하는듯 呼訴하는듯 그들의 情況이야말로 可憐합니다」²²⁾.

東拓支配農村에 있어 日本人 移民農家들이 韓國人村落民을 支配하는 態樣은 耕作權者에 對한 小作農民이라는 人間關係로서 規定되는 것만이 아니었다. 다음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拓에서 耕作權을 얻은 日本人移民들은 既存의 小作權을 完全히 默殺하고 極少數의 韓國人들에게 哀願의 代價로 小作權을 베풀어주는 方式을 強行하여 맞지 않았다. 「日本人移民들은 오는 그 即時로 우리는 東拓에서 25年間 契約하고 何地 何番을 得하였으니, 다

21) 東洋拓殖株式會社編, 殖民事業各地方別成績, 1916年, 24~25面.

22) 朴達成, 「內外로 觀한 彼の 2大勢力」, 開闢, 第30號(1922年, 12月號) 67面.

내어 놓으라 하여 小作權을 奪한다 합니다. 그러면 朝鮮人은 方在 起耕을 하다가도 꾀막도 못하고 그만 내어준다 합니다. 그리고 그 移民들에게 事情又事情하여 科擧할 八字라야 “한 귀땡이”式 얻어서 農事라고 짓는다 합니다. 農民 70餘戶가 擧皆 그 모양이라 합니다. 아! 얼마나 불상한 處地입니까.»²³⁾ 이처럼 日本人移民들은 韓國人들에게 「科擧할 八字」로 形容할만큼 어려운 條件으로 小作權을 빼돌려 주는 方式으로 처음부터 諱屬의인 支配를 強行할 수 있는 強權者로 君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小作權을 빼돌려 준다는 簡單한 事實을 실마리로 하여 日本人移民들은 村落의 主體이었던 韓國人들을 經濟的인 條件뿐만 아니라 人間的인 條件에 있어서까지 뜻하는대로 諱屬시키고 支配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東拓은 가장 넓은 農土를 占有하는 日本人移民에게 農監이라는 地位와 權限을 주었다. 農監은 다음 引用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村落의 絶對權者로서 封建時代의 村主에 該當하는 村落支配者로 行勢하였다. 「日本人 農監 久池 井運八의 所有地가 一洞을 거의 次持하였다 합니다……. 回路에 久池家를 訪하니 果然 村中王의 感이 있습니다. 뒤로 果園 앞으로 菜田 또 앞으로 農場인데 富者의 觀이 歷歷합니다……. 失禮를 말하고 來意를 表하고 農村味를 問하니 그는 흰 수염을 흔들흔들하면서 매우 沈着한 口吻으로 「日本보다 낫다」하면서 自己에 成功을 隱然히 자랑하는 꼴이야 氣가 턱 막힙니다.」²⁴⁾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恩平面에서 東拓이 占有한 農土面積은 475餘町步이었다. 따라서 恩平面의 村落마다 驛村里의 境遇에 比等한 事態가 일어났던 것으로 推定하여 볼 수가 있다. 또한 高陽郡에는 12個面이 있었다. 다른 11個面에 있어서도 韓國村落들이 恩平面의 驛村里에서 強行되고 있었던 東拓移民들에 依한 村落統制의 性格과 態樣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見解가 驛村里의 探訪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었던 開闢誌記者가 품었던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東拓이 經營하는 水利組合區域內에 散在하였던 村落들에 對한 支配關係의 實態를 보기로 하겠다. 全北 益山郡 五山面 木川里에 設立되었던 益沃水利組合은 東拓이 7萬8,000圓을 投下하여 1926年 12월에 完成한 것이다. 水利組合區域內의 農地面積이 330餘町步이었는데 東拓의 占有地面積이 242町步이었다.

益山郡의 18個面 中에서 東拓移民이 定着한 面數는 1927年末에 이르러 11個面이었다. 11個面에 걸친 平均移民戶數는 18個戶이었다. 그러나 益沃水利組合區域인 五山面에는 104戶(868名)의 東拓移民農家가 定着하였다고 한다²⁵⁾. 따라서 水利組合의 豪利區域에 對한 東拓移民의 集中度가 壓倒的으로 높은 것이었다는 事實을 알 수가 있게 된다.

五山面 뿐만 아니라 益沃水利組合區域 안에는 1926年末에 이르러 591戶의 東拓移民農家가 定着하였다. 益沃水利組合區域이야 말로 東拓移民의 特權區域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東拓水利組合區域안에 있어서 日本移民들에 依한 韓國人 小作人들에 對한 支配關係는 어떻게 強行되었던 것인가.

東拓移民과 韓國人 小作人들 사이에 버려졌던 支配關係의 社會的 側面을 말하여 주는 記錄을 찾아볼 道理가 없다. 다만 經濟的 側面에 있어 東拓移民들에 依한 韓國人 小作人들에 對한 支配關係가 그 얼마나 苛酷한 것이었는지를 말하여 주는 事例을 引用하여 볼 수가 있을 뿐이다.

23) 朴達成, 前揭文, 67面.

24) 朴達成, 前揭文, 67面.

25) 全羅北道 益山郡廳編, 益山郡事情, 1928年, 62~63面.

益沃水利組合區域은 韓國에서도 有數한 肥沃地帶로서 農業經營의 收益率이 높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拓은 移民農家 1戶當에 2町 5反歩의 農地를 反當 66圓으로 讓渡하였다. 그런데 東拓移民農家は 韓國人小作人들로부터 反當 2石(收穫量의 50%)이라는 高率의 小作料를 徵收하였다. 따라서 東拓移民農家들은 投資額에 對하여 38%의 收益率을 올리게 되었으니 近代의인 鑛工企業에 있어서도 達成하기가 어려운 高率의 收益을 올릴수가 있었다²⁶⁾. 50%의 小作料란 封建時代의 高率小作料를 再現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小作料의 徵收形態가 封建時代의 基準에 따르는 것이었다는 事實은 輕少한 것으로 보아 넘길 수가 없다. 小作料의 徵收形態가 封建의인 基準에 따르는 것이었다면 東拓移民과 韓國人 小作人들 사이에 가로 놓여진 人間關係도 封建의인 基準에 따르는 主從의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東拓移民農家들은 韓國人 小作人들을 隸屬支配하여 農業經營의 收益率을 繼續의으로 드높이기 爲한 새로운 方案으로서 1922年 4月에는 五山面 木川里에 東拓村을 建立하였다²⁷⁾. 東拓村이란 韓國人 小作農家를 集團의으로 收容하는 特殊村落을 말하는 것이다. 韓國人 小作人들을 隸屬支配함으로써 50%의 小作料를 徵收하여 38%의 收益率을 올릴 수가 있었던 日本人 移民農家들은 韓國人 農家들과의 雜居마저 忌避한 나머지 韓國人 農家의 傳統的인 居住村落으로부터 그들을 逐出하여 特殊한 外廓村落안에 살도록 하는 強權措置를 斷行하고 말았다.

東拓移民들이 이와같은 強權措置를 斷行할 수가 있었던 것은 村落의 行政權이 그들의 手 中에 들어 있었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는 不動의 指標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日本移民의 居住村落과 韓國小作農家의 居住村落이 分離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事實은 東拓이라는 特權의인 植民會社가 빚어낸 複合的인 村落構造의 形成을 象徵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로 東拓移民들이 韓國人 小作人들을 隸屬支配하였던 事實을 生活 및 思想的側面에서 살펴어 보기로 하겠다. 東拓移民들은 韓國人 小作人들의 傳統的인 農事勞働方式인 “푸마시”를 비롯한 協同勞働制度를 禁壓하는 것을 일삼았다²⁸⁾. 이것은 村落의 遺制인 共同生活制度를 打破함으로써 個別的인 小作人의 東拓移民農家에 對한 隸屬關係를 물샐틈 없이保有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殘惡行爲로 볼 수 밖에 없다.

慶北 永川郡 琴湖面에 所在하는 東拓移民村落의 境遇에 있어서는 韓國人小作人들로 하여금 “머슴”의 雇傭이나 用水의 紛爭을 비롯하여 夫婦싸움에 이르기까지 東拓移民의 日本人指導者가 調整하는 事態가 버려졌다고 한다. 東拓移民에 仇한 韓國人村落民에 對한 生活統制가 그 얼마나 徹底한 것이었느냐를 말하여 주는 興味있는 事例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韓國人村落民에 對한 生活統制는 思想統制에 直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運動의 烽起에 즈음하여 東拓移民들의 支配村落에 있어서는 抗日을 불으짓는 村落民이 發生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⁹⁾. 만약 이것이 事實이라면 東拓移民村落에 있어 韓國人 小作人들이 힘입었던 隸屬과 壓制의 程度가 그 얼마나 深刻하였는가를 말하여 주는 指標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東拓移民村落의 韓國人小作人들이 日本人化되어져 가고 있

26) 柳川勉, 「湖南地方之産業」, 朝鮮之事情, 第18輯(1926年, 12月), 44面.

27) 柳川勉, 前揭文, 45面.

28) 安秉春, 「朝鮮人に及ぼせる 東拓移民の影響」, 朝鮮, 第81號(1921年 11月), 94面.

29) 安秉春, 前揭文, 74面.

었다는 指標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東拓移民村落에는 警察駐在所뿐만 아니라 憲兵派出所가 設置되었으며 郵便通信施設이 完備되었다. 이와 같은 무지무지한 恐怖雰圍氣속에서 韓國人 小作人들이 抗日과 獨立을 외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앞에서 東拓移民들에 의한 村落支配의 實態를 세가지 事例에 걸쳐서 살펴 보았다. 東拓의 移民事業이란 日本人 移民들을 村落마다 投入하여 地主의 地位를 가눌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日本人 移民들을 村落社會에 投入하여 村落支配者의 地位를 가추도록 強權의인 補完策을 베풀었으므로 村落民들의 生活와 思想을 植民地政策의 指向點에 맞추어 統制하는 것을 窮極의인 目標로 삼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東拓移民戶數는 1926년에 9,000戶이던 것이 1935年 6月에는 3,893戶로 減少하였다. 어찌하여 東拓移民戶數는 이처럼 激減하였던 것인가. 營農者로서의 適格性을 無視한 選定規準의 亂脈相에도 그 原因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重要的 原因은 植民地政策에 발맞추어 村落民들의 生活와 思想을 統制하는 機能을 發揮하기에 알맞지 못한 東拓移民 農家들을 果敢하게 日本으로 돌려보내는 強權指處를 斷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第4節 金融組合에 의한 村落統制의 展開過程

1904年 9月 30日에 仁川에 上陸하여 韓國政府의 財政顧問에 就任하였던 目賀田種太郎은 對韓植民政策의 基調를 財政金融의 側面에서 構築하였다는 事實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이미 李朝政權이 東學亂을 비롯한 村落民의 거듭되는 抵抗運動에 부딪쳐 왔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는 目賀田 種太郎이 金融機構을 編成함에 있어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는 槓手로 役割할 수 있는 金融機關의 設立을 發想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目賀田 種太郎은 1906年 3月에 李朝政府로 하여금 農工銀行條例를 發布토록 하였다. 日本에서 設立運營되어 왔던 農工銀行制度를 無分別하게 韓國에 適用한 處事に 지나지 않았다.

目賀田 種太郎이 發想하였던 農工銀行은 그 運營面에서 迷路에 빠지고 말았다. 農工銀行이라는 金融機關이 村落社會를 金融이라는 실마리로서 統制·支配하는 役割을 다할 수가 없다는 事實을 깨닫게 된 目賀田 種太郎은 唐摠하게도 農工銀行을 設立한 1年 後인 1907年 5月 30日에 勅令 第33號로서 地方金融組合規則을 發布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³⁰⁾.

「男爵 目賀田 種太郎」이라는 傳記는 金融組合의 機能을 다음과 같이 華麗하게 記述하고 있다. (가) 韓國政府는 每組合에 對하여 1萬圓의 事業資金을 無利子로 貸下하고 理事와 農業技手를 任命한다. (나) 金融組合은 區域內의 農民을 組合員으로 加入시키고 그들에게 農事資金, 種苗, 肥料, 農具等을 貸與한다. (다) 金融組合은 組合員이 生産한 穀物 및 其他生産物을 倉庫에 保管하고 委託販賣을 하기도 한다³¹⁾.

이처럼 村落社會의 「利益增進」을 主眼으로 하는 業務活動을 버리기로 되었던 金融組合의 設立에 對하여 村落民들은 武力으로 反對하는 事態를 빚어내었다. 金融組合이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日本植民政策의 觸手が 村落社會에로 빠지게 되는 事實에 對하여 村落民들이 武力으로 抗拒하였다는 事實은 오히려 當然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30) 秋田 豊編, 朝鮮金融組合史, 1929年, 4面.

31) 松本 重威編, 男爵 目賀田 種太郎, 1938年, 425面.

었다.

1907年 8月 24日에는 韓國最初의 地方金融組合인 光州金融組合이 設立되었다. 光州金融組合의 運營을 專擔하는 理事자리에는 奧田 種彥라는 日本人이 就任하였다. 奧田種彥 自身이 體驗한 記錄에 依하면 金融組合의 設立을 反對하는 村落民들의 狙擊을 받은 일조차 있었다는 것이다³²⁾. 金融組合의 設立에 對한 村落民들의 反對鬭爭이 그 얼마나 熾烈한 것이었느냐를 말하여 주는 事件이다.

光州金融組合의 組合長에 崔相鎭이 就任하였다. 崔相鎭은 舊韓末에 正三品의 官等을 가졌으며 中樞院議官에까지 任命되었던 사람으로서 光州地方에 있어서는 50町步 以上の 農土를 所有하는 大地主層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光州農工銀行 理事에 任命되었을 뿐만 아니라 鄉校의 幹部로서 一般民衆에 대하여 巨大한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名望家이었다. 이처럼 허수아비 같은 組合長자리에 地方 名望家를 就任시키는 手法으로 金融組合의 村落社會에 對한 侵透를 順調롭게 할려는 策略이 너무나 鮮明하게 엿보이고 있다.

1910年 4月末 現在로 地方金融組合數는 100個所로 增加하였으며 組合員數는 3萬 1,097名에 이르렀다고 한다³³⁾. 이 무렵에 韓國에는 331個郡이 있었으며 韓國人 農業戶口數는 233萬 3,814戶이었다³⁴⁾. 그렇다면 331個 郡中에서 100個郡에 金融組合이 設立되었으니 金融組合의 設立率은 30.2%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33萬 3,814戶의 農業戶口數中에서 金融組合員이 된 戶口數가 3萬 1,097戶에 지나지 않았으니 金融組合에 加入한 農業戶口數의 比率은 1.3%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金融組合의 設立數에 있어서나 組合員의 加入數에 있어 매우 遲遲不振한 實情이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金融組合의 設立과 組合員의 加入에 있어 부딪치었던 難關을 打開하기 위하여 理事俱樂部가 結成되었다. 그런데 1909年 8월에 財務監督局長이 發送한 理事俱樂部의 設立通牒文에도 資金 및 業務上의 支援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金融組合의 設立과 組合員加入이 不振한 實情이라는 事實이 率直하게 表明된 바가 있었다³⁵⁾.

韓日合邦이 이루어졌으나 朝鮮總督府는 좀처럼 金融組合의 村落社會에 對한 侵透體制를 整備할 저력을 갖출 수가 없었다. 韓日合邦을 反對하는 村落民들의 武力抗爭이 곳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全域에 걸쳐서 韓日合邦을 反對하는 義兵活動이 벌어졌던 것이다.

義兵과 日本憲兵과의 衝突 狀況(1910年)

種 別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黃海	平南	江原	咸南	合計
衝 突 回 數	21	4	2	5	1	14	31	14	20	6	128
衝 突 義 兵 數	402	38	6	36	5	185	478	115	343	224	1,832
日憲兵의 出動人員	127	17	7	25	6	79	175	68	101	35	644
日本側의 消費彈藥	2,941	204	37	133	52	607	2,959	900	1,604	295	9,732 ³⁶⁾

32) 秋田 豊編, 前掲書, 101~103面.

33) 山口 豊正, 朝鮮之研究, 1911年, 260~261面.

34)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年度版, 第87表에 依據함.

35) 山根 諒編, 朝鮮金融組合協會史, 1934年, 25~26面.

36)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年度版, 第310表에서 作成하였음.

그런데 韓日合邦을 反對하는 武力抗拒運動은 오로지 村落社會에서 村落民들에 依하여 이루어졌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事實을 證明하기 爲하여 朝鮮總督府 警務局의 「暴徒に 關する 駐劄軍通報綴」의 記錄中에서 1910年 9月~12月間의 義兵活動狀況만 例示하여 보기로 하겠다. (가) 9月 12일에 義兵 4名이 醴泉近郊에서 醴泉警察署 巡查 8名과 交戰하였다. (나) 10月 17일에 義兵 2名이 京畿道 三串里地點에서 日本憲兵派出所의 補助員 2名과 交戰하였으며, 慶北春陽의 東方40里地點에서 義兵 4名이 日本憲兵 2名과 交戰하였다. (다) 10月 23일에 義兵 3名이 忠南 恩山場 北方 10里地點에서 日本憲兵派出所補助員 1名과 交戰하였다. (라) 10月 24일에 義兵 7名이 京畿道 麻田 西方10里地點에서 日本憲兵 5名과 交戰하였으며, 黃海道 延安 東北方 20里地點에서 義兵 7名이 日本憲兵 2名을 襲擊하였다. (마) 11月 11일에 義兵 4名이 江原道 金城警察署에서 派遣한 郵便送送巡查를 襲擊하였다. (바) 11月 16일에 憲兵 20名이 黃海道 溫井院 東南方 20里地點에서 日本憲兵 4名과 交戰하였다. (사) 11月 20일에 義兵 5名이 京畿道 松陽里 東方10里地點에서 日本憲兵 3名과 交戰하였다. (아) 12月 18日 義兵 3名이 黃海道 上長陽洞에서 日本守備隊員과 交戰하였으며, 義兵 3名이 黃海道 新幕 北方 50里地點에서 日本 守備隊員과 交戰하였다. 이처럼 村落社會가 抗日義兵活動의 中心舞臺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金融組合으로 하여금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는 觸手로 利用하려는 手法은 좀처럼 適用의 機會를 붙잡을 道理가 없었다.

抗日義兵活動이 退潮된 무렵인 1914年 5월에 이르러 地方金融組合令이 發布되었다. 村落社會에 對한 金融組合의 侵透體制를 整備하려는 政策意圖가 地方金融組合令의 發布로 具顯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地方金融組合令은 中小農民層에 屬하는 村落民들의 加入을 促進하는 것을 法令의 基本趣旨로 삼고 있었다는 事實로 미루어 이처럼 풀이하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金融組合數는 1914年末의 227個所, 1915年末의 240個所, 1916年末의 250個所, 1917年末의 260個所에서 1918年末에는 338個所로 増加하였다. 어찌하여 1918年末에 이르러 金融組合數는 前年末의 260個所에서 338個所로 急増하였으며 組合員數도 前年末의 12萬 0,451名에서 14萬 6,791名으로 急増하였는가.³⁷⁾

朝鮮總督府는 1918年 6월에 制令 第13號로 金融組合令을 改正 發布하였다. 金融組合令의 改正要點은 (가) 地方金融組合의 名稱을 金融組合으로 한다. (나) 農村金融組合과 더불어 都市金融組合을 設立한다. (다) 組合員의 資格을 農民뿐만 아니라 一般庶民層에도 開放한다. (라) 各道單位로 金融組合聯合會를 設立하고 業務를 指揮하며 資金을 調整토록 한다는 것들이었다. 各道單位로 金融組合聯合會를 設立하였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金融組合이 朝鮮總督府의 地方行政體制안에 偏入되어 마치 地方行政의 別動隊와 같은 役割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金融組合이 地方行政의 別動隊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資金支援策을 마련하기 爲하여 朝鮮總督府는 實質적으로 「總督府金庫」로서의 機能을 다하여왔던 朝鮮殖産銀行으로 하여금 金融組合의 母金庫로 삼았다.

그런데 朝鮮殖産銀行의 頭取인 三島 太郎은 金融組合令이 施行된 3個月後인 1919年 1월에 「金融組合理事 및 聯合會理事諸君에 바란다」는 告示文을 發表하였다. 1919年 1月이란 特

37) 朝鮮總督府編, 最新朝鮮事情要覽, 1920年度版, 322~323面.

異한 意義를 지닌 時點이었다. 1次大戰後의 世界情勢를 整理하는 所謂 美國大統領일손의 14條原則이 發表되었으며 民族自決을 宣言하는 原則은 韓國人들의 獨立意慾을 前例없이 드높이여 가고 있는 무렵이었다. 三島 太郎는 告示文에서 일손의 民族自決宣言에 따라 獨立의 可能性을 信賴하기 始作하였던 韓國人의 民心動向을 指摘하면서 金融組合이 村落民과 都市庶民에 對한 民心鎮壓의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는 命題를 強調하였다³⁸⁾.

1918年末에 이르러 金融組合數가 338個所로 增加하였으며 組合員數가 14萬 6,791名으로 增加한 要因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다. 그러면 果然 金融組合은 村落社會에 어떻게 侵透하여 가고 있었는가. 1925년에 있었던 平南道의 江東金融組合의 事例를 살펴서 보기로 하겠다.

1925年 7월에 江東金融組合理事로 赴任하였던 重松 嗣修는 組合區域안에서도 가장 強靱한 排日意識을 품고 있었던 江東面 下里라는 村落에 對하여 集中的인 侵透策을 배출 것을 理事就任의 抱負로 삼았다고 한다. 下里는 30餘戶가 살고 있는 傳統的인 兩班村으로 알려여진 마을이다. 1925年 11月 中旬에 높은 느티나무가 서 있는 下里마을을 重松理事라는 日本人이 찾은것이 마을사람들이 金融組合을 意識하게 된 첫 動機이었다고 한다. 日本人理事에게 겨누었던 마을사람들의 視線은 侮蔑에 찬 것이었다고 한다. 倭놈이 왔다는 외침소리를 듣자마자 마을婦人들은 大門을 잠그기에 바빴다고 한다.

그러면 重松理事는 마을사람들에게 어떠한 事業方針을 提案하였는가. 農事資金 및 肥料의 貸與, 農事法の 改良指導, 收穫物의 貯藏 및 去來斡旋等 金融組合法안에 華麗하게 記述되어 있는 事業種目에 關하여서는 一言半句의 言及조차 없었다. 重松理事가 提案한 것은 1戶當 15個의 白色래구홍 種卵을 나누어 줄터이니 養鷄라는 副業을 일삼으라는 것이었다. 重松理事의 提案이 마을사람들의 嘲笑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下里마을을 떠나면서 重松理事는 「말할 수 없이 싸늘한 슬픔」을 느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當然한 歸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³⁹⁾. 1戶當 15個의 種卵을 나누어 주고 養鷄라는 副業을 일삼으라는 金融組合의 事業方針은 15個의 鷄卵을 받고 日本의 植民政策에 나부끼라는 命題와 같은 것이니 可笑롭기가 짝이없는 事實이라고 斷定할 수 밖에 없다.

重松理事는 初志를 구하지 않고 江東普通學校長인 日本人 菅 近一과 協議하여 學校兒童을 손자비로 利用하는 養鷄의 獎勵法을 適用하였다. 가을마다 開催하는 品評會에 鷄卵을 出品토록 하는 強要法이었다. 어쨌든 歲月의 흐름에 따라 1928년에는 下里마을이 養鷄村으로 알려여지게 되었다. 重松理事는 平壤의 光成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한 尹敏燮이라는 青年에게 接近하여 養鷄運動의 指導者를 삼았다. 한편 重松理事는 平壤에 駐屯하는 日本軍聯隊에 下里마을의 鷄卵을 調達하는 길을 열었다. 軍用鷄卵을 調達하게 되었으니 下里마을의 養鷄業은 市場을 確保하는 길은 마련할 수가 있게 된 셈이다.

그러면 下里마을이 養鷄業은 무엇을 얻어왔는가. 重松理事는 尹敏燮에게 마을會館의 建立을 慫慂하였다. 尹敏燮은 養鷄貯金 50圓을 내어 마을會館의 垆地를 寄附하게 되었다. 尹敏燮이가 提供한 垆地에서 所謂 地鎮祭가 舉行되었다. 이 자리에서 菅校長은 마을사람들에게 東方遙拜(日本 天皇에 對한 遙拜)를 號令하였으며 重松理事는 日本國歌의 合唱을 號令하였다⁴⁰⁾. 1戶當 15個의 種卵을 나누어 주는 處事에서 비롯한 金融組合의 養鷄運動은 下里

38) 中島 司編, 三島太郎氏記念誌, 1923年, 227~229面.

39) 重松 嗣修, 朝鮮農村物語, 1941年, 120~124面.

40) 重松 嗣修, 前掲書, 240~245面.

마을의 사람들로 하여금 東方을 遙拜하고 日本國歌를 합창토록 하는 마을會館의 建立을 爲한 地鎖祭로 終末을 맺게 되었다.

도대체 金融組合은 어찌하여 本然의 事業目的을 遂行하지 못하고 下里마을의 生々한 實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個의 種卵을 나누어 주고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는 效果를 거둘라는 악삭빠른 姿勢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가. 1920년에 日本國會의 代議士에 當選된 以來로 日本政界의 正論派로 活躍하였던 中野 正剛은 1914년에 大阪毎日新聞의 記者로 來韓하여 韓國의 政情을 觀察한 바가 있었다. 中野 正剛은 視察記에서 朝鮮總督府가 자란을 일심고 있는 地方金融組合같은 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낱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斷定하였다. 金融組合은 韓國의 地主와 兩班들에게만 資金을 배풀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의 富者와 兩班들은 金融組合에서 빌린 資金으로 零細한 農民들을 괴롭히는 高利貸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理由를 痛快하게 指摘하였다⁴¹⁾.

그러면 어찌하여 中野 正剛가 指摘하듯이 金融組合의 資金惠澤은 地主 및 兩班層에만 局限되었는가. 이제 宋秉直의 境遇를 檢討하여 보기로 하겠다. 宋秉直은 忠南 論山郡 彩雲面 堤內里에서 2,000石을 秋收하는 地主家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1909년에 서울의 大東專門學校 法科를 마친 然後에 家業을 繼承하여 堤內里의 土豪가 되었다. 戶口數가 182戶이며 人口數가 847名인 堤內里는 經濟 및 社會生活面에 있어 宋秉直의 一舉一動에 따라서 움직이는 處地에 있었다. 彩雲信用組合, 農事改良契, 玉成夜學校等은 宋秉直에 依하여 設立·運營되어 왔다⁴²⁾.

江景地方金融組合은 宋秉直을 評議員 및 監事로 任命하였다. 宋秉直 한 사람만 붙잡으면 堤內里뿐만 아니라 彩雲面의 村落民을 모조리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宋秉直을 江景地方金融組合의 評議員 및 監事に 任命하였던 策略이었다. 이처럼 極少한 地方名望家를 金融組合의 任員으로 包攝함으로써 村落社會에 對한 統制·支配의 效果를 올릴려는 金融組合의 活動樣式은 法令의 改正이 數次에 걸쳐서 거듭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持續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金融組合의 體質이 이와 같은 方向으로 硬直化되었기 때문에 資金貸出이 金融組合의 任員에 包攝된 地主 및 兩班層에 局限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1931年 6월에 朝鮮總督으로 赴任하였던 宇垣 一成은 다음 해부터 所謂 農山漁村振興運動을 展開하였다. 무엇을 할라는 振興運動이었는가. 農山漁村振興運動을 推進함에 있어 宇垣一成이 構想하였던 가장 重要한 政策手段이 高利債整理事業이었다. 高利債整理事業이란 一般高利債를 金融組合에 對한 債務로 바꾸어 놓는 處事に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高利債整理事業을 主軸手段으로 하는 農山漁村振興運動은 金融組合에 依하여 推進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過去에 있어 村落社會의 高利債를 促進하는 役割을 다하였던 金融組合이 아이로니칼하게도 高利債整理事業의 推進者가 되고 말았다.

어쨌든 金融組合은 高利債整理事業을 手段삼으면서 村落社會에 對하여 債權者로서 統制·支配의 觸手を 뻗히게 되었다. 地方名望家들을 任員으로 包攝하고 特惠融資를 배풀어 줌으로서 村落社會를 間接적으로 統制·支配하여 왔던 金融組合은 高利債整理事業이라는 名分 밑에서 債權者로서 村落民들을 直接的으로 統制·支配하는 段階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宇垣 一成이 提唱하였던 農山漁村振興運動은 金融組合의 村落社會에 對한 統制·支配方式을 한고비 強力한 것으로 轉換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고 말았다.

41) 中野 正剛, 我が 觀たる 滿鮮, 1915年, 378面.

42) 小原 新三, 「忠清南道管内優良里の數例」, 朝鮮彙報(1915年 8月號), 60面.

더구나 注目할만한 것은 金融組合이 推進하였던 高利債整理事業의 對象者가 一般農山漁村民이 아니라 金融組合이 組合員들에 局限되었다는 事實이다. 農山漁村振興運動이 開始되었던 1932年末에 이르러 金融組合者는 674個所이었으며 組合員數는 83萬 1,805名이었다. 그런데 다음해의 年末에 이르러 金融組合數는 685個所로 增加하였으며 組合員數도 100萬 3,648名으로 增加하였다⁴³⁾. 이처럼 1年동안에 組合數가 11個所나 增加하였으며 組合員數가 17萬 1,843名이나 增加하였다는 事實은 理由없는 일은 아니었다. 高利債整理의 對象者를 金融組合의 組合員에 局限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던 現象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여췌던 高利債整理事業을 미끼로 하여 金融組合數와 組合員數가 前例없이 빠른 速度로 增加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村落社會에 對한 統制·支配의 觸手로 金融組合을 利用할라는 朝鮮總督府의 策略은 適中率을 더욱 높이며 갈수가 있게 되었다.

1932年 10月에서 1937年 9月末에 이르기까지 金融組合은 47萬 5,548戶가 지니었던 3,820萬 6,495圓의 負債를 整理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金融組合에 依한 高利債整理事業은 一般高利債를 金融組合에 對한 債務로 바꾸워 놓는 處事に 지나지 않았다. 1937年 9月末까지 金融組合은 30萬 2,189戶의 組合員에 對하여 2,887萬 5,931圓의 高利債整理資金을 貸付하였다는 事實은 重視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⁴⁴⁾.

朝鮮總督府는 1937年 2月 11日의 日本 紀元節에 즈음하여 26名의 一線指導者, 26名의 村落中堅人物, 26名의 指導農家を 「農山漁村振興功勞者」로 表彰하였다. 이제 3名의 事例만을 檢討하여 보기로 하겠다. (가) 全南 長城金融組合 珍南支所의 副理事인 金容學은 3萬 8,609圓의 高利債를 2萬 5,223圓의 金融組合債로 轉換하는 課業을 適切히 執行하였다. (나) 慶北 高靈金融組合理事 趙範錫은 組合員 27戶가 지닌 2,639圓의 高利債를 金融組合債로 整理하는 課業을 圓滿히 執行하였다. (다) 江原道 大和金融組合理事 金鎮永은 2萬 5,001圓의 高利債를 金融組合債로 轉換함에 있어 良好한 成績을 올렸다⁴⁵⁾. 이와같은 事例들은 朝鮮總督府가 一般高利債를 金融組合에 對한 債務로 轉換함으로써 金融組合으로 하여금 村落社會에 對한 統制·支配의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政策命題를 그 얼마나 重要視하였느냐를 말하여 주는 指標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朝鮮總督府는 1935年 8월에 殖產契令을 發布하였다 金融組合의 村落社會에 對한 接觸範圍를 더욱 擴大하고 統制·支配方式을 더욱 深化할라는 政策意圖에 따라서 發想된 것이었다. 金融組合區域안에 散在하는 村落들을 殖產契로서 모조리 組織化하려는 것이 朝鮮總督府가 殖產契令을 發布한 根源의인 意圖이었다. 이제 殖產契를 손잡이로 하여 金融組合은 村落社會의 구석구석을 統制·支配할 수가 있게 되었다.

1936年 9月末 現在로 殖產契를 가진 金融組合數가 281個所이었으며 殖產契數는 978個이었다. 한편 地方金融組合만 헤아려 보더라도 698個所이었으며 따라서 金融組合支所가 200個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殖產契를 設立한 金融組合數가 231個所에 지나지 않았다는 事實은 殖產契의 組織作業이 그처럼 빠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朝鮮總督府의 行政權을 動員하여 強行하였던 殖產契의 結成事業이 늦어진 理由는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殖產契로 하여금 村落社會를 支配·統制하는 中樞機構로 役割할 수 있도록 慎重한 配慮를 베풀면서 殖產契의 設立事業을 推進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지

43)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統計要覽(1933年版), 128面.

44) 財務局, 「金融組合의 高利負債整理狀況」, 調査月報, 第9卷1號(1938年 1月) 105面.

45) 朝鮮總督府編, 農山漁村振興功勞者名鑑, 1937年 3月, 23, 37, 72面.

무엇보다도 殖産契의 運營責任者인 主事 및 副主事の 任命에 關하여 金融組合이 그 얼마나 細心한 配慮를 베풀었느냐를 말하여 주는 몇가지 事例을 살펴서 보기로 하겠다. (가) 全北 完山金融組合에 附屬된 仁橋殖産契의 主事와 副主事を 任命함에 있어 村落의 大姓氏인 蘇氏와 南氏의 對立이 殖産契의 運營에 支障을 이룩한 것을 憂慮한 完山金融組合은 蘇氏派나 南氏派에 屬하지 않는 尹氏를 主事に 任命하고 金氏를 副主事に 任命하였다. (나) 南完山金融組合에 所屬된 虎岩殖産契의 主事に 振興會長과 區長을 兼任하고 있었던 村落의 名門家를 任命하였다⁴⁶⁾. 振興會란 1932년에 發足하였던 農山漁村振興運動을 推進하기 爲한 村落指導機構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虎岩殖産契의 境遇는 振興會長과 區長을 兼任한 사람을 主事に 任命함으로써 殖産契를 村落社會를 支配·統制하는 中樞手段으로 活用할라는 意圖가 鮮明히 엿보이는 것으로 推測할 수가 있다. (다) 全南 谷城金融組合에 所屬된 新里殖産契의 主事に 漢學의 素養을 가졌으며 오랫동안 區長을 歷任하였을 뿐만 아니라 面協議員의 職責을 가진 村落名門家인 李起源을 任命하였다. (라) 全南 筏橋金融組合에 所屬된 內雲殖産契의 主事에는 勸農共濟組合의 指導委員이며 農村振興實行組合長의 職責을 맡은 사람이 任命되었다⁴⁷⁾.

이처럼 朝鮮總督府와 金融組合은 農山漁村振興運動의 成果에서 優良한 成績을 거두었다고 判斷되는 村落을 選定하여 示範的으로 殖産契를 設立하였으며 殖産契의 運營責任者인 主事を 末端 行政指導機構의 責任者들로 하여금 兼任시키는 方式으로 任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朝鮮總督府와 金融組合은 用意周到한 殖産契의 設立方式을 오래 繼續할 수가 없었다.

1936年 2月 26일에 農村出身의 靑年將校들이 日本農村의 慘狀에 憤激하여 反亂을 일으킨 事件이 發生하였다. 朝鮮總督府의 御用文筆家들조차 2.26事件이 韓國農民에 미치는 精神的인 衝擊을 憂慮하여 果敢한 農村對策을 서둘러야 한다는 意見을 提唱하였다⁴⁸⁾.

그러면 朝鮮總督府는 2.26事件의 衝擊을 農村政策面에서 어떻게 反映시키었는가. 農村政策의 基調에는 何等의 變化를 나타내지 않은채로 金融組合의 末端組織인 殖産契의 結成을 서둘렀을 뿐이었다. 朝鮮總督府는 1938년부터 殖産契5個年設置計劃을 實踐에 옮기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1940년에는 韓國人들을 戰爭協力分子로 強要하는 國民組織體인 所謂「國民總力聯盟」이 結成되었다. 朝鮮總督府는 國民總力聯盟의 末端組織을 殖産契와 더불어 村落單位로 結成하였다. 朝鮮總督府의 思考方式에 따르면 國民總力聯盟의 末端組織인 部落聯盟과 殖産契는 「表裏一體」의 것이었다⁴⁹⁾. 바로 이와같은 思考方式이야말로 殖産契의 本質이 金融組合의 村落社會에 對한 統制·支配關係를 具顯하는 代行組織이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殖産契5個年設立計劃은 1942년에 끝났다. 그리하여 殖産契數는 1943年 6月末 現在로 4萬 7,083個所로 增加하였다. 이제 村落社會의 구석구석에 結成된 殖産契는 農産物의 販賣와 生必品の 購買를 비롯한 業務를 執行할 뿐만 아니라 國民總力聯盟의 末端機構로 村落民들의 生活과 思想을 戰爭協力の 方向으로 매체질하는 役割마저 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46) 殖産契巡り(全羅北道の卷), 金融組合, 第112號(1938年 1月號), 183~186面.

47) 殖産契巡り(全羅南道の卷), 金融組合, 第113號(1938年 2月號), 140~142面.

48) 市瀬 五郎, 半島廻轉, 1936年, 37面.

49) 鈴木 伊勢治編, 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 1944年, 59面.

第5節 結 言

日帝時代의 韓國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여 왔던 3大要因인 日本人大農場, 東拓移民, 金融組合等을 實證的인 方法에 따라서 分析하였다. 이와 같은 分析方法에 따른다면 水利組合 漁業組合, 產業組合같은 機構가 村落社會를 統制·支配하였던 實態도 마땅히 檢討의 對象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日本人大農場뿐만 아니라 日本人中小地主나 村落社會를 活動舞臺로 하는 日本人高利貸業者들의 活動相도 檢討의 對象이 되어 마땅할 것이다. 資料가 整理되는 대로 後日의 課題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되었다.

日帝時代는 30年前에 終幕을 내리었던 가까운 歷史段階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現存하는 韓國村落社會의 態樣을 解明하는 가장 貴重한 열쇠는 日帝時代의 村落社會에 關한 分析의 結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日帝時代의 村落史를 精密히 다듬는 課業은 韓國村落史를 整理함에 있어 오히려 研究의 頂點을 이루는 것이라고 斷定할 수 밖에 없다.

日帝時代史에 對한 學問的關心이 높아져 가고 있다. 暗黑의 時代 이었기는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冷澈한 分析이 要望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여러 側面에 걸친 分析整理作業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日帝時代라는 特異한 時代의 마음과 얼굴을 가장 鮮明히 表示하여 주는分野는 村落社會의 實態이었다고 믿는다. 이 論文이 日帝時代의 村落社會에 對한 研究活動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의 礎石이 된다면 기쁘기가 짝이 없는 일로 생각할려고 한다.